

38

이가현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경기 장안고)

2026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말→언어→사회→경제 진로는 목표가 아닌 과정

고교 시절 방송반 활동과 학교 자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현씨.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도,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직접 수업을 만들어 친구들 앞에 서는 일도 쉽지 않았다. 때로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 아나운서를 꿈꾸며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넓혀온 가현씨는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에 진학한 뒤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가현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사진** 이의종

'말하는 직업'에서 출발한 아나운서의 꿈

처음 만난 가현씨에게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반듯한 자세였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모습에서 TV 속 아나운서가 떠올랐다. 중학교 때부터 말을 잘하고 발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가현씨는 막연히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교에 입학한 뒤 진로 희망을 적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직업이 아나운서였다. 고1 때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기보다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을 사귀는 데 집중했다. 성적도 만족스럽지 않아 진로와 대학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대신 좋아하는 국어와 영어 공부에 힘을 쏟았다.

"〈국어〉 시간에 언어의 자의성을 배웠는데, 비문학 지문에서 소쉬르 언어학을 접하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언어'와 '생각' 중 무엇이 먼저인지 궁금해졌거든요. 사물과 그것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반드시 정해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같은 대상도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이를 계기로 언어학에 더 관심이 갔죠."

마이크 앞에 서며 넓어진 관심

고1 때 방송반에 들어간 것도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였다. 방송에서 아나운서의 역할은 단순히 대본을 읽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본을 쓰고 방송 장비를 다루며 전체 흐름을 연출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팀원 간의 협력이 중요했다. 미디어와 매체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다. 특히 교내 방송제에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촬영해 완성하면서 광고에 관심이 생겼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간결하게 담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재미까지 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뉴미디어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봐야 할지 궁금해 뉴미디어의 특징을 조사했어요. 〈언어와 매체〉 시간에는 '미디어의 이중성'을 탐구했어요. 정보의 확산과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가짜 뉴스, 여론 왜곡 등 부정적인 영향도 살펴봤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디어의 이중성이 국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며 사회 문제로 관심을 확장해나갔어요."

미디어에 대한 관심은 과학기술이 개인의 정보 선택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이어졌다. 특정 주제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다른 관점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검색 엔진이 정보 편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했다.

과목과 과목이 연결되는 신기한 경험

수학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과목이었지만,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과학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사회 과목은 달랐다.

"〈확률과 통계〉 시간에 진로와 연계해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처음엔 막막했어요. 무작정 도서관에 가서 일상 속 확률과 통계를 다룬 책을 읽으며 투표를 떠올렸어요.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 확률'을 탐구했어요. 결의안 통과 조건을 확률의 곱셈 법칙과 이산확률변수 개념으로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찬성이 있어야 결의안이 통과되는지 살펴봤죠. 처음에는 어렵고 막막했던 개념들이 탐구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이해되더라고요. 수학으로 국제 정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과목을 선택할 때는 배우고 싶은 과목을 우선하되, 수강자 수도 고려했다. 사회 교과에서는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세계지리〉 등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선택했다. 사회 현상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과목에도 흥미가 커졌다.

공부법에도 변화를 줬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프린트물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공부했지만,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과는 크지 않았다. 공부법을 고민한 끝에 고2 때부터는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며 전체 흐름을 파악한 뒤, 프린트물도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반복해 살펴봤다. 이후에는 문제 풀이에 집중했다.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자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사회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현실의 이야기라는 걸 느꼈어요. 〈정치와 법〉을 통해 사회 현안과 정치 이슈를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됐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도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국어 시간에는 문학 작품을 배우며 작품이 쓰인 시대상을 이해했고, 〈생활과 윤리〉에서는 평소 관심 있던 대중문화의 윤리적 규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죠. 사회 과목은 공부라기보다 힐링에 가까운 과목이었어요."

정해둔 진로를 넘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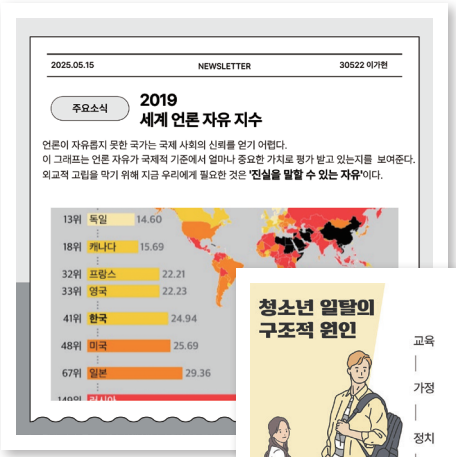
가현씨는 수시 모집에서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를 비롯해 자율전공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 계열,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등에 지원했다. 고교 때 〈정치와 법〉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기에 정치외교학과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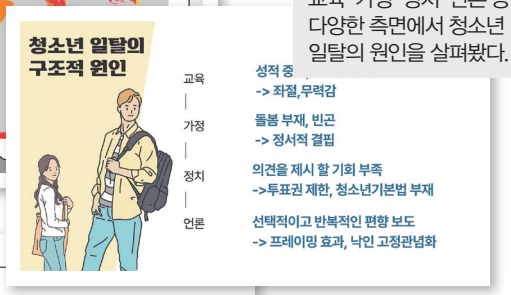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무전공 모집 단위라 1학년 때 〈경제학원론〉 〈정치학원론〉 〈사회학원론〉을 모두 공부해요. 고교 때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니 당연히 정치학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경제학이 흥미롭고 성적도 잘 나오더라고요. 경제학은 수학과도 관련이 깊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지금은 경제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익숙하고 잘하는 정치학과 낯설지만 새롭게 흥미를 느낀 경제학 사이에서 가현씨는 다시 진로를 고민 중이다. 그러면서 고교 시절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목표로 진로를 탐색하기 바빴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며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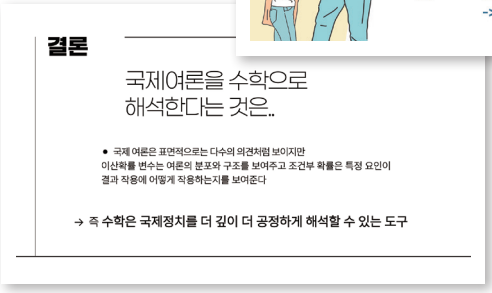
"고교 때는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없이 진로를 정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언가를 정하기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비롯해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와 외교 신뢰 등을 외교적 관점에서 탐구했다.



사회 교과에서 배운 낙인 이론을 청소년 일탈 문제와 연결해 탐구했다. 교육·가정·정치·언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살펴봤다.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 이산확률변수, 조건부확률, 정규분포 등을 활용해 국제 정치 현상을 해석했다.

나를 성장시킨 모교의 특색 활동

학교자율과정 리더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교사가 되어 발표하는 활동이에요. 저는 '영화로 보는 사회'를 주제로 〈청년경찰〉을 함께 보며 영화 속 사회 문제를 살펴봤어요. 영화 속 명대사를 영어로 번역해 두 언어의 표현과 전달력을 비교하기도 했죠.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와 기획을 고민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1학년 **〈국어〉** 국어를 비롯한 언어 전반에 관심이 많으며,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호기심을 느껴 '소쉬르의 언어학'을 탐구함, 매체 활용 능력 및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남 **〈통합사회〉**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역사 논쟁 등 국가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을 조사·발표함

2학년 **〈영어 I 〉** 학기말 프로젝트 수업에서 미디어 사용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주제로 모둠 영어 신문을 제작해 발표함, 한글과 영어 신조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함 **〈정치와 법〉**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활동에서 관심 있는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의 시각을 비교 분석함 **〈생활과 윤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윤리 단원을 학습하며 정보 공유와 관련된 쟁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구함

3학년 **〈언어와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새로운 언론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을 비교해 비평문을 작성함 **〈확률과 통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 확률 알아보기'를 주제로 탐구하며 수학 개념을 실제 국제 정치 현상에 적용함

의미 있었던 선택 과목

■ **〈정치와 법〉** 내용이 쉽지는 않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과목이라 유익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정치 분야에 관심이 커졌다. 유권자의 득표율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때는 수학을 활용해 평소 어렵게 느꼈던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다.

■ **〈생활과 윤리〉** 윤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과목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윤리 문제와 의료 분야의 윤리적 쟁점 등을 살펴봤다.

■ **〈윤리와 사상〉**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다. 여러 사상가의 사상을 배우며 그들의 생각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특히 공리주의와 의무론 등 서양 사상에 관심이 많아졌다.